혼신의 74投…“나이 아닌 그냥 선수로 봐 달라”

〈43세〉

임창용, KT전 11년만의 선발 등판

4.1이닝 2실점…노장 우려 씻고 합격점

‘임시’ 떼고 선발 로테이션 합류

선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임창용은 ‘24년 차 베테랑’이 아닌 ‘타이거즈 선수’를 이야기했다.

임창용은 지난 20일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하면서 화제의 인물이 됐다. 불펜으로 이동한 팻딘을 대신해 ‘임시 선발’로 출격하면서 삼성 시절이던 2007년 9월 30일 현대전에 이어 3946일 만에 가장 먼저 마운드에 등장했다.

타이거즈 소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96년 5월 31일 광주 LG와의 경기에 이어 8085일 만의 선발이었다.

시선이 집중됐던 이 날 경기에서 임창용은 4.1이닝 5피안타(1피홈런) 4탈삼진 2실점의 괜찮은 성적을 기록했다. 투구수는 74개, 직구 최고 구속은 146㎞를 찍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최고참’에게도 긴장됐던 경기였다.

22일 kt와의 홈경기에 앞서 만난 임창용은 “오랜만에 선발로 나가니까 긴장했다. 처음에는 긴장을 하면서 던졌다”고 웃으며 의미 있던 선발 등판날을 돌아봤다.

공격적으로 순간에 집중해야 하는 불펜 투수가 아닌 멀리 보고 던져야 하는 선발 투수인 만큼 생각도 많았다.

임창용은 “불펜에서 등판할 때는 주어진 이닝을 책임져야 하니까 전력으로 던져야 한다. 선발은 다르다. 뒤에 불펜까지 생각하면서, 최대한 불펜을 아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임창용은 지난 등판에서 4.1이닝을 소화하면서 ‘임시’라는 단어를 떼고 앞으로 선발로 역할을 하게 됐다. 임창용은 더 많은 이닝을 보면서, 선발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이다.

임창용은 “80개라는 투구수는 내가 개인적으로 설정한 목표였다. 5이닝 정도는 던져줘야 한다. 확실히 첫 등판 때는 4회 끝나고 나서 힘이 떨어지고 제구도 흔들렸다”며 “앞으로 팀 상황이 허락해준다면 2~3 경기는 더 많은 공을 던지면서 선발로 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불펜 투수로 뛰어왔고,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43세의 노장 선수인 만큼 그의 선발 역할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하지만 철저한 자기관리로 유명한 임창용은 최고참 선수가 아닌 ‘타이거즈 선수’로 자신을 응원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전했다.

임창용은 “나이를 떠나서 똑같은 선수로 봐주시면 좋겠다. 나이가 많은 베테랑이 아니라 KIA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응원해주시면 좋겠다”며 “선발로 뛰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유와 운동 시간도 늘었다. 불펜에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갈지 모르니까 힘든 부분도 있고 운동을 조절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5일 동안 차분하게 내 컨디션에 맞춰 준비할 수 있어서 편하다”고 말했다.

또 “4, 5선발에서 승리를 가져왔다. 팀이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 같다. 그 분위기를 잇는 역할을 하게 돼서 좋다”며 “준비 잘해서 퀄리티를 해야 한다. 팀 승리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톡톡

“경기 집중할 수 있겠어요?”

김민호 코치, 아들 선발데뷔 앞 초긴장

▲집중 못 하실 것 같은데요? = 22일 kt 위즈와의 경기에 앞서 김민호 수비 코치에 시선이 쏠렸다. 평소보다는 긴장된 모습의 김 코치. 이날 아들 김성훈이 한화 이글스의 선발 투수로 1군 데뷔전을 치르게 된 것이다. 김성훈은 지난해 경기고를 졸업하고 한화 2차 2라운드 15순위로 입단한 고졸 2년 차 투수다. “긴장하신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소를 지은 김 코치. 한승택은 “오늘 경기 집중 못 하실 것 같다”고 웃었다. 한승택은 자신의 프로 데뷔전에 대해서는 “개막전 두 번째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다. 투수는 이브랜드였다”며 “그때는 선발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긴장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떨린다”고 말했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었어요 = 지난 20일 kt와의 경기가 6-4 승리로 끝난 뒤, 최원준은 비장한(?) 표정으로 덕아웃에서 장비를 챙겼다. 이날 최원준은 9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해 멀티히트와 볼넷을 기록했다. 5-4로 앞선 8회 타석에서는 우중간 3루타로 출루한 뒤 값진 득점을 만들며 팀 승리에 역할을 했다. 수비에서도 제 역할을 해줬던 최원준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내일 선발 등판을 위해 (한) 승혁이 형이 엔트리에 등록되어야 하는 데 그럼 내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내가 나가야 뒤에 타자들에게 기회가 간다는 생각으로 집중했다”고 말했다. 최원준은 21일 1군에 잔류하면서 역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최원준은 22일 훈련 시간에 “공이 와서 뛰었는데 글러브에 들어왔다.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다”고 미소를 지었다.

▲승혁이가 되어야지 = KIA는 지난 20·21일 깜짝 선발과 5선발을 앞세워 연승을 기록했다. 깜짝 선발로 나서 4.1이닝 2실점의 역할을 해준 임창용에 이어 첫 선발 시즌을 보내고 있는 한승혁이 5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면서 기록된 승리. 22일 경기 전 “4,5 선발의 활약으로 좋은 결과나 나왔다”는 취재진의 이야기에 “두 선수가 잘해주었다. 팀이 더 탄력을 받아야 하는데”라며 웃음을 보인 김기태 감독. 하지만 임기영이 계속된 부진으로 2군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됐고, 3선발이었던 팻딘은 불펜으로 전환해 승리와 홀드를 잇달아 거두고 있는 상황. “3선발이 누구냐?”는 질문에 김 감독은 “(한) 승혁이가 되어야지. 5승했는데”라면서 한승혁의 이름을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

‘예비 호랑이’ 김기훈, 동성고 청룡기 결승 진출 견인

장충고전 8.1이닝 2실점 … 4대 2 승

‘예비 아기 호랑이’ 김기훈이 광주 동성고의 청룡기 결승 진출을 이끌었다.

동성고가 22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장충고와의 제73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에이스’ 김기훈의 8.1이닝 2실점의 호투를 앞세워 4-2 승리를 거두며 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지난 2003년 김주형(KIA), 임창민(NC), 이원석·한기주(이상 삼성) 등의 멤버들로 청룡기 우승을 차지한 뒤 15년 만에 전개되는 우승 도전이다. 동성고는 양현종(KIA)이 가세한 2004년에는 청룡기 준우승을 거뒀다.

KIA 타이거즈의 1차 지명을 받은 김기훈이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줬다. 1회 2사에서 볼넷을 내줬지만 1루수 땅볼로 첫 이닝을 소화한 김기훈은 2회에는 첫 탈삼진을 뽑는 등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2-2로 맞선 3회가 유일하게 실점을 허용한 이닝이었다.

3구 삼진으로 3회를 열었지만 이제웅과 박민석을 각각 몸에 맞는 볼과 볼넷으로 내보냈다. 중견수 플라이로 투 아웃은 만들었지만 상대 3번 타자 박주홍의 타구가 좌중간을 가르면서 2타점 적시타가 됐다. 동성고가 1사에서 나온 이현서의 볼넷으로 4회초 공격에 나섰다. 허진이 고의 사구로 걸어 나간 뒤 상대 폭투와 실책 등이 나오면서 2점을 뽑아내는 데 성공했다.

다시 리드를 잡은 4회말 김기훈이 초구에 선두타자 이영운을 3루수 플라이로 처리했고, 연속 삼진으로 이닝을 종료시켰다.

5회 다시 한번 김기훈에게 실점 위기가 찾아왔다. 헛스윙 삼진으로 원아웃을 만든 뒤 우측 안타로 주자를 내보냈다. 공 하나로 2루수 플라이를 만들었지만, 안타에 이어 볼넷을 허용하면서 2사 만루가 됐다. 하지만 김기훈은 우익수 플라이로 위기를 넘긴 뒤 9회 1사까지 책임졌다.

4-2로 앞선 9회말 선두타자 이석제를 상대로 이날 경기의 9번째 탈삼진을 뽑아낸 김기훈은 105번째 공이 볼이 되면서 볼넷을 내주고, 투구수 제한에 따라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김기훈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이제원이 실점 없이 아웃카운트 2개를 책임지면서 동성고는 결승행을 확정했다. 결승전은 23일 오후 6시에 목동야구장에서 열린다. /김여울 기자 wool@

추 ‘52’에서 멈춘 도전

클리블랜드전 무안타 출루행진 마감

‘추추트레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의 ‘위대한 도전’이 52경기 연속 경기 출루로 멈췄다.

추신수는 22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벌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4타수 무안타 2삼진으로 침묵했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현역 최장 연속 경기 출루 기록 보유자다. 지난 5월 14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을 시작으로, 지난 21일까지 52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벌였다. 이미 아시아 출신 선수 최다 연속 출루(종전 스즈키 이치로 43경기), 텍사스 구단 단일시즌 기록(종전 훌리오 프랑코 46경기), 현역 선수 최다 연속 기록(앨버트 푸홀스, 조이 보토 48경기)을 훌쩍 넘어섰다.

‘전설’ 베이브 루스의 51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뛰어넘은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역대 최장인 테드 윌리엄스의 84경기 연속 출루를 향해 달려나갔으나 꿈의 기록에 다가서지는 못했다.

클리블랜드 우완 선발투수 카를로스 카라스코가 추신수의 발목을 잡았다. 추신수는 1회말 첫 타석에서 3루수 땅볼로 잡혔고, 3회말에는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0-9로 밀려난 6회말 1사 3루에서는 노볼-2스트라이크에서 풀카운트까지 끌고 갔지만, 파울팁 삼진으로 또 돌아섰다.

2-12로 벌어진 8회말 2사 1루에서 마지막 타석에 섰다. 투수는 댄 오데로로 바뀌었다. 추신수의 타구는 2루수 제이슨 킵니스의 글러브로 들어갔다. 킵니스가 2루로 달리던 선행주자를 잡으면서 추신수는 야수선택으로 1루를 밟았지만 출루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팀은 3-16로 대패, 4연패에 빠졌다. /연합뉴스